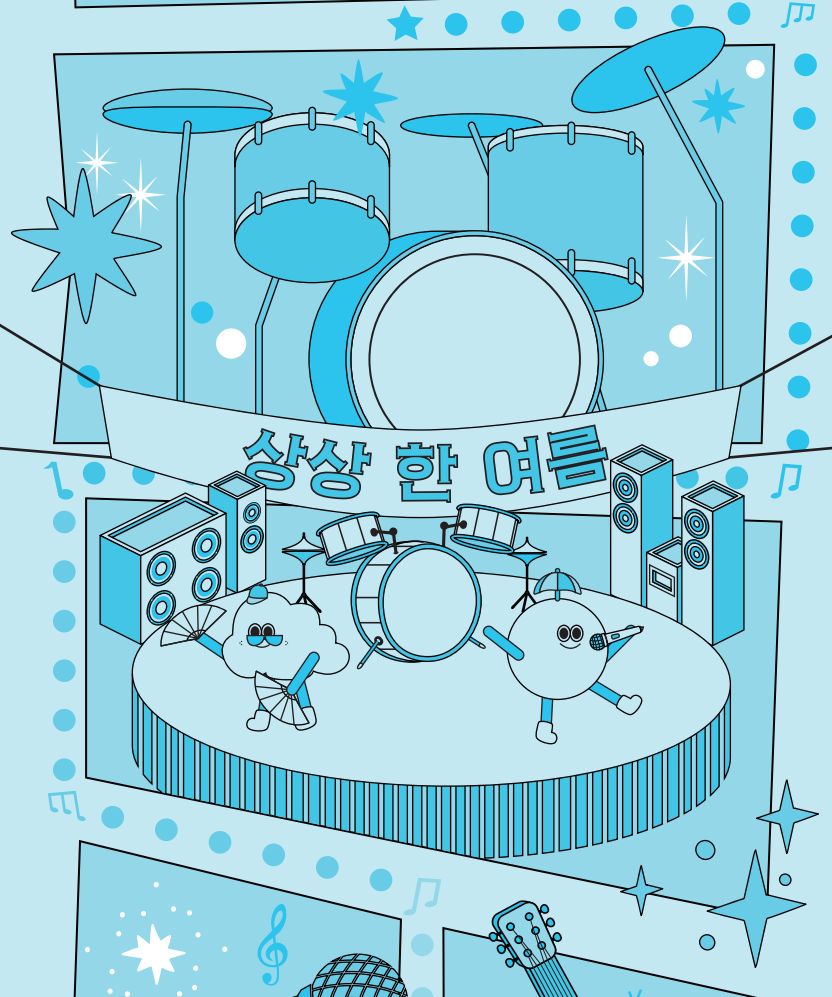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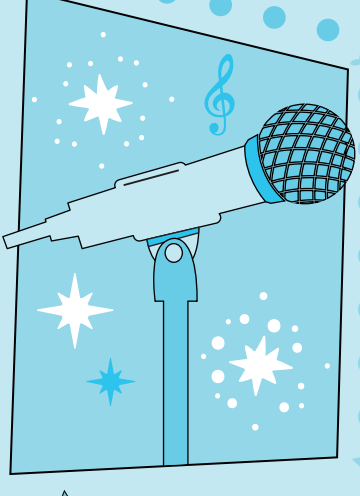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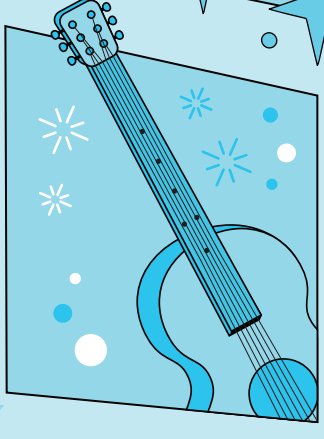
조운동 네 줄 소식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요선동 · 새명동 · 옥천동 · 지하도상가

2025년 8월 18호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CONTENTS

조운 게시판 1

그래도 조운 2

우리동네 기억지도 8

조운 친구들 10

인턴 일기 12

우리는 즐겁게 14

좋은 소식 17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5년 8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제작 도서출판 산책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그래도 조운

지하도상가 밴드연습실, 거울이 많고 시원해서 좋아요

성수여자고등학교 3학년 희연은 밴드 '제네(ZENE)'의 기장이자 드러머다. 드럼을 처음 시작한 건 중학교 2학년 때. 음악학원에 다니던 친구가 함께 다니자고 해서 호기심에 방문했던 것이 자연스레 관심으로 이어졌다. "계이름을 잘 몰라서 악기에 거부감이 있었는데, 드럼은 계이름이 필요 없다고 해서 흥미가 생겼어요." 고등학생이 되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했지만, 학교 안에서는 방음 문제도 있고 공간도 부족해서 쉽지 않았다. 고민하던 중 밴드를 하는 또래 친구들을 통해 지하도상가 내 밴드연습실을 알게 되었다.

밴드는 이곳을 보통 2~3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한다. 처음엔 예약 방식이 좀 헷갈렸지만 한 번 해보고 나니 금방 익숙해졌다고. 개인 입시 연습도 하지만, 멤버들과 무대에 오르기 위한 합주를 많이 연습한다고 한다. 밴드 분위기도 자유롭고 편해서, 멤버들이 원하는 곡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함께 맞춰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실리카겔의 '노 페인' 같은 곡들이 연주할 때 반응이 좋아 자주 연습하고 있다. 가장 좋아하는 곡은 밴드 Radiohead의 'Paranoid Android'라고 한다.

"스틱을 잡으면 자신감이 생겨요. 어떤 장르든 전부 다 잘하는 뮤지션이 꿈이에요."



요즘 희연은 실용음악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 밴드 멤버 중 예체능을 준비하는 친구는 여럿 있지만, 음악 전공을 목표로 하는 건 희연 혼자다. "저는 음악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있어요." 합주 전에 연습실에 먼저 와서 혼자 드럼을 치는 게 일상이 됐다.

희망 대학은 실용음악으로 유명한 곳이다. 실력자들이 몰리는 만큼 부담도 크지만, 희연은 자신의 롤모델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 '석지민 트리오'의 드러머 여진우처럼, 장르를 가리지 않고 탄탄하게 연주할 수 있는 뮤지션이 되는 게 목표다.



가장 좋은 점은 음악을 크게 틀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도상가 밴드연습실 맞은편엔 댄스연습실이 있다. 성수여자고등학교 댄스 동아리 '메카(MECCA)'는 연습을 위해 꾸준히 이곳을 찾는다. 특별한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는 장소다. "소리를 마음껏 키울 수 있어서 좋아요. 주변에 상가가 없으니까 눈치 안 보고 연습할 수 있거든요." 다현의 말처럼, 음악을 크게 틀어야 하는 댄스 동아리에게는 이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메카의 멤버인 3학년 기장 다현, 2학년 수민, 1학년 하람.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나이도 성격도 다른 세 사람이지만, 춤에 대한 애정만큼은 누구보다 닮아 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안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가끔은 동시에 같은 동작을 떠올려서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거울에 비친 서로의 자세를 확인하며 작은 동작하나에도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3학년 다현은 메카의 기장이자, 팀의 중심이다. 춤을 처음 시작한 건 초등학교 1학년. "레드벨벳 무대를 보고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댄스 학원을 권유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춤을 추고 있어요." 원래 메카는 케이팝 위주의 동아리였지만, 다현이 기장을 맡게 되면서부터 새롭게 변화를 주고 있다. 파워풀한 곡 위주로 바꿔 카리스마 넘치는 퍼포먼스를 이어가고 있다. 다현은 메카를 소개할 땐 누구보다 진지하다. 그러다가도 "우리 메카는 미모로도 유명하다니까요"라며 능청스럽게 웃는 모습에선 팀을 향한 애정과 여유가 동시에 느껴진다.

"아이돌을 꿈꾸며 시작한 춤,
이제는 춤 출때가 제일 즐거워요."



무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강원고등학교 찬조 공연. "반응도 좋았고, 동선도 잘 맞아서 만족스러웠어요." 함께 만든 무대가 잘 풀렸을 때 느끼는 성취감은 여전히 큰 힘이 된다. 좋아하는 댄서로는 댄스팀 '베베(BEBE)'의 '바다'를 꼽는다. 팔다리가 길쭉길쭉하고 시원하게 춤추는 모습이 멋있어서 닮고 싶다는 다현.

"저는 3학년이라 이번 1학기가 마지막 활동이에요. 그래도 메카가 춘천에서 제일 유명한 댄스 동아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무대 위보다 뒤에서 후배들을 응원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다현의 마음은 여전히 춤을 향해 있다.

“춤출 때가 가장 편해요.
그럴 때 제일 제 모습 같거든요.”



2학년 수민은 조용한 성격이지만, 팀 내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하고 중심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메카 안무를 구성하거나 새로운 동작을 익힐 때도 수민의 꼼꼼함은 팀원들에게 늘 큰 힘이 된다. 춤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았다. “언니를 따라 아이돌에 빠졌고, 자연스럽게 춤을 접하게 됐어요.” 처음엔 따라 하는 재미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춤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식이 되었다. 꼭 잘 추지 않아도, 춤을 출 때 가장 나다워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자꾸 춤을 추게 된다고, 수민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냥 좋아서 계속하게 돼요.
하나하나 배우는 것도 재밌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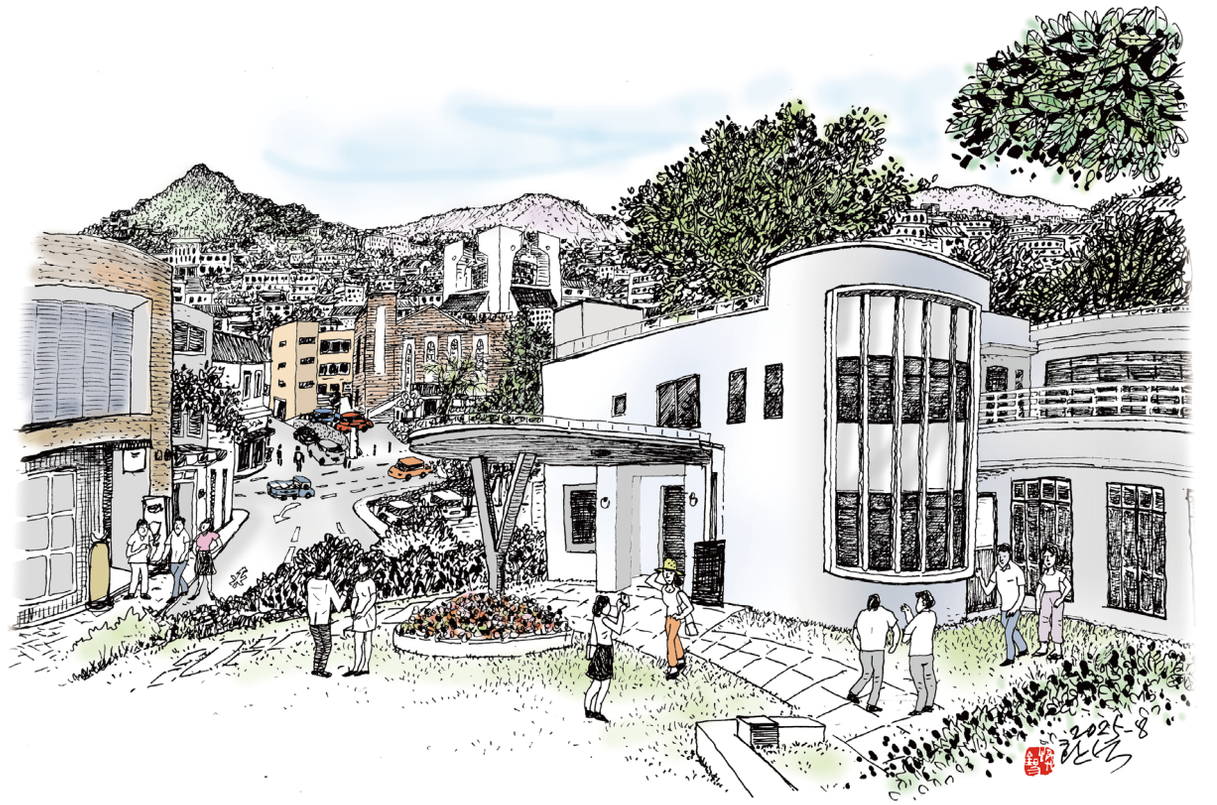


1학년 하람은 팀의 막내다. 하지만 막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춤과의 인연은 길다. “중1 때부터 계속 동아리를 했어요. 고등학교 와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꾸준히 춤을 추면서 무대가 익숙해졌다고 한다. 무대 위에서는 긴장되기보다 오히려 즐겁다고 느낄 만큼, 춤은 어느덧 하람의 일상 속 일부가 되었다. 하람이 춤을 추는 이유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다. 단순히 좋아서다. “춤은 그냥 좋아서 계속하게 돼요.” 단순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도 없을 것이다. 좋아하니까 자꾸 추게 되고, 추다 보면 또 재미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대에 서게 된다.

우리동네 기억지도

춘천문화원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춘천시청 안에는 1959년 강원도지사 관사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립되었다가 1999년부터 춘천문화원 건물로 사용되어 친숙한 등록문화재인 〈춘천 강원도지사 구 관사〉가 있다. 지금은 춘천시청 부속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동안 〈춘천문화원〉으로 사용되면서 〈춘천미술관〉, 〈봄내극장〉과 더불어 춘천문화의 중심을 이루었었다. 하얀 벽에 나무 창틀이 인상적이던 구 춘천문화원 건물은, 춘천시민들에게 '문화와 지역'이라는 단어를 처음 전파시킨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를 배우고 지역의 전통놀이를 전승하던 지역문화의 중심 마당이기도 했다.

2002년부터 춘천문화원과 인연을 맺고, 춘천학연구소장을 역임한 허준구 박사님을 통해 듣는 춘천문화원의 풍경은 정겹기만 하다. 1층 사무실 왼편에는 지역의 향토자료가 빼곡한 도서실이 있었고, 2층에는 서예나 수필 그리고 한문을 가르치던 강의실이 있었다. 강의 중간 잠깐 나와서 얘기를 나누던 테라스도 2층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커다란 은행나무 두 그루가 있던 마당이다. 마당에 넓게 드리운 은행나무 밑에서는 때때로 야외수업이 열리기도 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늘을 내어주며 문화사랑방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춘천문화원이 이사 가고 개보수가 이루어지면서 사라져버린 은행나무가 항상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한다.

마주보이는 춘천미술관은 구 춘천중앙감리교회 자리로, 2000년 춘천시에서 매입하면서 현재 교회는 퇴계동으로 이전하였다. 붉은 벽돌 건물은 2001년 〈춘천미술관〉으로 바뀌었고, 뒤의 흰색 건물은 〈봄내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말이면 항상 사람으로 북적이던 교회에서 탈바꿈한 〈춘천미술관〉은 전시공간에 목말라하던 춘천미술인들에게 전시와 교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지금까지 충실히 하고 있다. 전시장 바깥으로 조용한 도심의 건물들과 이어지는 옛 골목길, 그 풍경이 캔버스 위의 그림보다도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봄내'란 춘천(春川)의 옛말로, 〈봄내극장〉은 오랫동안 춘천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마땅한 공연장이 없는 춘천에서 연극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았다. 그 옆의 아트플라자에서는 주로 사진전시가 열리곤 하는데, 사진전을 보면서 호수를 끼고 있는 춘천의 아름다움에 다시 한 번 감동하곤 했다. 춘천의 도심에 자리하면서 역사를 품고 지금까지 문화의 중심을 이루는 이곳은 단순한 장소를 떠나 춘천의 예술이 활짝 꽃피우는 바탕이 되던 곳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경도, 사람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이 장소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어느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남아 있다.

미술관 옆, 어느 틈에 새로 문을 연 카페 창 너머로 〈춘천미술관〉이 보이고 〈구 춘천문화원〉도 보인다. 춘천은 그렇게, 과거와 현재가 겹쳐진 채로 여전히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글_도서출판 산책 원미경



조운 친구들

상상언더그라운드 가29

조카를 위한 선물이
준수비즈의 시작이었어요



준수비즈
한윤희 대표

가게 이름에 '준수'라는 이름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조카 준수에게 선물해주고 싶어서 비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워낙 소중한 조카라 예쁜 걸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을 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들기가 즐거워졌죠. 플리마켓에 나가게 되면서 예상보다 반응이 좋아 자신감을 얻었고, 결국 공방까지 열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준수에게 주려고 만든 것'이었지만, 브랜드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름을 고민하다가 '준수비즈'로 정하게 됐죠. 자연스럽게 붙인 이름이지만 그 안에 이야기가 담기고, 사람들이 쉽게 기억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아이들이 공방에 자주 온다고 들었어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정말 많아요. 절교 위기라는 얘기부터 짝사랑 얘기까지 털어놓고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싸웠다가 화해했다며 다시 와서 소식 전해주기도 하고, 고민 상담을 하듯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 참 귀엽고 고마워요. 조카와 서스럼없이 지내며 생긴 '이모력' 덕분에 아이들 얘기를 잘 들어주다 보니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한 번 따뜻하게 대해주면 친구들 데려오고, 또 그 친구들이 와서 홍보까지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준수비즈가
어떤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나요?

단순히 예쁜 비즈를 파는 가게가 아니라, 누구나 편히 들를 수 있고 따뜻한 기억을 안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정성이 느껴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정성을 유지하고 싶어요. 비즈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비즈를 먼저 정하고 그에 어울리는 색감과 질감을 가진 서브 비즈를 고르며 균형을 맞추죠. 과하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꽤 세심한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에요. 매번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면서 늘 배우고, 그 안에서 저만의 감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려고 해요.

인턴 일기



강릉시 옥천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을 다녀오다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사례견학

글/사진 이지원 인턴

지난 7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배정된 도시재생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2025년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사례견학'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견학을 통해 강릉시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직접 둘러보고 다양한 도시재생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강릉시 옥천동은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중심시가지형)로 선정된 후, 2018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어 2022년 12월 말 마무리되었습니다. '공동체 회복', '문화예술 활성화', '마을경제 재생'을 목표로 ▲어울림 플랫폼 조성 ▲옥천동 시민예술촌 구성 ▲담장 허물기 ▲소규모 부지 활용 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었습니다.

견학 교육 장소였던 '어울림 플랫폼'은 주민들의 창업, 주거, 문화·복지 활동을 지원하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마을카페 등 생활 밀착형 공간이 들어서 주민 거점공간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견학 초반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이현애 팀장님의 강의를 통해 사업 개요를 듣고 'GO FISH!' 보드게임을 활용해 도시재생 관련 키워드를 재미있게 학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옥천동 부뚜막 이야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로 선정된 쿠키 만들기 체험은 어울림 플랫폼 내 공유주방에서 진행되었고 모두가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직접 만든 쿠키여서인지 더욱 맛있게 느껴졌습니다ㅎㅎ



쿠키를 굽는 동안 옥거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상연 이사장님의 안내로 도시재생 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슬샘 문화창고', '한복문화창작소', '마을안전의자', '구슬땀 공방' 등을 방문하며 도시재생이 실제 공간에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옥천동 일대를 걸으며 도시재생은 단순한 물리적 개선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견학은 도시재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틈새콘서트 시즌4

**6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
그 뜨거웠던 순간들**

지난 2023년 6월에 시작되었던 틈새콘서트. 어느덧 계절을 돌고 돌아 네 번째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처음으로 주말 공연이 진행되었어요.

평일과는 또 다른 생기를 담고 있는 토요일의 조운동네. 따갑도록 내리쬐는 햇살 아래에서도,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피해 내려온 계단 아래에서도, 공기를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틈새 버스킹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비단 요일뿐만이 아니었어요. 명동의 중심 거리인 명동길에서의 무대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쿵쿵 울려 퍼지는 사운드, 솔솔 불어오는 바람, 야외 공연의 매력을 담뿍 느낄 수 있었어요.

최다 지원자 수를 기록한 이번 시즌은 무려 100팀이 넘는 버스커들이 참가를 신청했어요. 사전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16팀이 '틈새콘서트 시즌4'를 빛내주었습니다. 보컬부터, 악기 연주, 댄스, 밴드 등 다채로운 장르의 무대를 매주 감상할 수 있었어요.



더운 날씨에도 멋진 무대를 보여준 버스커들과 환호하며 즐겨준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틈새콘서트는 하늘이 높고 푸르른 어느 가을날 다시 만나요!

우리는 즐겁게



우당탕탕 뚝딱뚝딱!
청소년 주도형 지역 공간 개선 프로젝트

'상상 아카데미'



7월 19일부터 8월 9일,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와 청소년이 지하도상가의 여백을 채우고 향기를 불어넣기 위해 뭉쳤습니다. 플로리스트, 조향사, 천연비누 제작자, 공간 디자이너. 4가지의 직업 교육을 통해 지하도상가 내 유휴 공간을 꾸미는 활동을 진행했어요. 학생들이 직접 공간을 탐색한 후,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을 구체화했습니다. 플라워 포토존 형성, 버블 핸드워시 설치 등 상상 아카데미에서 함께 협업하여 만든 결과물은 지하도상가 곳곳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틈새콘서트 시즌5

가을 정취 가득, 낭만 물씬, 틈새콘서트 시즌5가 찾아옵니다. 올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틈새콘서트가 이번엔 높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하게 돌아올 예정이에요. 지난 시즌처럼 공개 모집을 통해 버스커들과 함께합니다. 9월부터 약 두 달간 진행될 주말 버스킹 공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50-4938 이예은 코디네이터

'SMASH' 밴드 페스티벌

청소년 문화예술 공연 'SMASH' 밴드 페스티벌이 8월 30일 상상언더그라운드 소공연장에서 개최됩니다.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는 행사로 춘천시 청소년들의 멋진 밴드 공연을 만나볼 수 있어요. 꿈과 열정이 가득할 무대 기대해 주세요!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8/16~8/31 소양상미회 정기 전시회
9/1~9/15 제11회 예림회전
9/16~9/30 마음을 두드리는, 글씨를 꾸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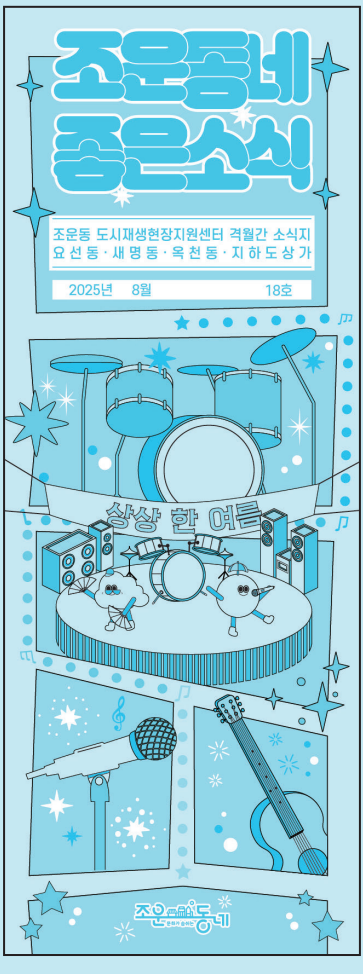
문의 033-250-4935 성현아 코디네이터

지하도상가 여름 휴가

8월 18일, 19일, 20일은 춘천 지하도상가 여름 휴가 기간입니다~ 방문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좋은 사람 모여라

MISSION
도시재생 청년인턴십
사례견학 교육 장소는?



조운동네 좋은소식 18호를 보고
문제를 맞혀 주세요.

yeahey1011@wehago.com으로 정답과 연락처 발송
추첨을 통해 선정, 당첨자는 개별 회신 드립니다.

기간	2025년 8월 15일 부터 29일까지
발표	2025년 9월 5일
상품	모바일 커피 기프티콘

조운동네 카카오톡 채널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춘천시 City of Chuncheon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